

그림비

문헌정보학과 소식지

No. 창간호

(1999년 3월호)

편집 : 문헌정보 학술편집부

편집인 : 학술부장 이상옥

발행 : 문헌정보 학생회

발행일 : 1999년 4월 12일

내용 글 미리보기

인사드립니다

격려의 글

자유기고

도서관소식

학과소식 /

학술편집부 연간계획

문화소개

생각하는 글 /

문정과에 바라는 글

쉬어가는 코너

여러분, 이게 아세요?

- 1999년 3월 2일부터 사회과학대학 문정과에서 인문대학 인문계열로...
- 1학년 학생회비가 아직 60%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 사서는 봉사철학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21Century

문헌정보

Lib.&Info. 학술부

● 인사드립니다

혹시, 낙산에 살랑거리는 봄 향기를 맡아보셨나요?

그동안 그림비를 읽어주신 학우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학술부에서는 기존의 그림비 책자형을 비롯하여 새로이 한 학기에 두 번씩 소식지형 그림비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1학기에 3, 5월 그리고 2학기에 9, 11월 1년에 걸쳐 총 4회 발간에 정입니다. 그림비 소식지형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 학우 여러분의 결속과 학과 소식의 대중화, 그리고 새롭고 유익한 정보의 전달에 있습니다.

그림비 발간에 맞추어 학술편집부의 로고를 95학번 이상옥님이 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본교 이미지마크를 둘러놓은 것과 비슷하게 하여 한성대학교의 이미지와 학과의 의미를 담아 정보의 흐름을 표현함으로써 무한히 발전하고자하는 취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1999년도에는 뜻하지 않게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그러한 새내기들의 기대에 떨어지지 않게 성실히 봉사하는 학술편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7 조진선

● 격려의 글

학술편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청춘”

서 은 경 교수 / 문헌정보학과장

한때(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신지식인에 대한 논란이 있더니 또 한 편에서는 “청춘”에 대한 정의적 토론이 한참인 것 같다. 사무엘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
리킨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청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청춘일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그리
고 단호히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는..

’95 이 상 옥 / 문헌정보학 학술부장

우리 문헌정보학과도 어느덧 열 아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무슨 학교가 이
모양이냐고 짜증을 내지만 그래도 우리학교라고
대학교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면 으레 한성대학이
란 글자를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해하고 안주해서는 남들보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 우리학과, 타대학
학생들처럼 실력과 참여도로 한 걸음씩 성큼성큼
큰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고민과 선배님들의 관심으로 저희 학술부가 이
제 제자리를 찾고자합니다. 저희 학술편집부는
여러분 곁에서 최고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
을 약속합니다.

멋진 학술부가 되길.

’97 성민지 / 문헌정보학 학생회장

아직은 쌀쌀하지만 왠지 두꺼운 옷을 마다하게 되는
봄입니다.

99년 한해. 모든 문정인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문정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
로 학생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문정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학술부.... 그리고
“그림비”. 언제나 진지한 모습으로 고민하는 선배
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학술부라는 이름으로 열
심히 살아가는 학술편집부 여러분!! 언제나 우리 문정
인과 함께 했으면 좋겠구요. 학생회 발전과 강화에 큰
역할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더욱 멋진 학술부가 되길 기원하구요... 언제나 옆에
서 힘이 되어줄수 있는 학생회장여 될게요.

학술부 파이팅!!

단합된 모습 볼 수 있길

졸업생 ’94 이 민 경 / 한성대 도서관

학술부에 같이 참여했던지가 벌써 3, 4년 전인
데.. 내가 학술부였을 때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
던 것이 약간 후회가 되는데 지금 있는 학술부원
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나는 그림비가 편안한
스타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학년도 부
담없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사서직에 대
한 진출 여부를 실어서 졸업할 후배들에게도 도
움이 되는 그림비가 되면 좋겠네요. 후배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은요...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
는 다가가기가 힘들다는거 알죠? 좀더 선배들과
친해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면 좋겠네
요. 마지막으로 학술부원끼리의 일체감이 잘 형
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단합도 잘되고요.. 그럼
더 좋은 그림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92 김병수 ’97 김소희

● 자유 기고문

후배를 바라보며...

벌써 3학년....

아직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정말루...

97년 2월. 아직 입학식도 하지 않은 내가 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술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든게 즐겁기만 하던 1학년 시절, 평생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술을 마셔도 뺨뺨했던 시절, 언제
나 싱그러운 1학년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시절....

그런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새내기 때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던 그 모습보다는 졸업이
라는 커다란 문을 앞에 두고 이젠 내 미래를 정말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늦었을 지도 모르겠다.

한 달 전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3학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선배가 되었으면서도 99학번이 낯설기만 하고 좀처럼 쉽게 친해질 수가 없다.

학생수가 너무 많아지고 학과가 아닌 학부로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선배든 후배든 서로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선배들은 어떤 후배가 들어왔는지, 누가 우리 과 후배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선배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3학년이 되어보니 지난 시절이 참 그림고 그래서인지 후배들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든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선배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한번만이라도 참여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배와 후배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장하는 글

인문계열 ’99 김 미 정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팍 짜여진 시간표대로만 살아왔다.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난
세월 동안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여기는 한성대
학교. 대학생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
로운 시간들을 새내기다음으로 채워가며 대학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비록 고등학생 때의 숙제와 다들 바 없지만 레포트들 작성하랴, 선배와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
하기 위한 행사들에 참여하랴... 어찌 보면 대학 생활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한
다. 이는 아마도 갑자기 닥친 자유를 감당하기에는 그 동안의 생활이 너무나도 구속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 생활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새내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
게 혼란을 주는 것. 바로 “자유”라고 말하고 싶다.

새내기의 신선함, 발랄함, 새내기의 창조정신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심분 발휘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
을 희망차게 만들어야 한다.

’97 우 정 희

● 격려의 글

학술편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청춘”

서 은 경 교수 / 문헌정보학과장

한때(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신지식인에 대한 논란이 있더니 또 한 편에서는 “청춘”에 대한 정의적 토론이 한참인 것 같다. 사무엘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
리킨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무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청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청춘일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그리
고 단호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는..

’95 이상 옥 / 문헌정보학 학술부장

우리 문헌정보학과도 어느덧 열 아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무슨 학교가 이 모양이냐고 짜증을 내지만 그래도 우리학교라고 대학교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면 으레 한성대학이 란 글자를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해하고 안주해서는 남들보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 우리학과, 타대학 학생들처럼 실력과 참여도로 한 걸음씩 성큼성큼 큰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고민과 선배님들의 관심으로 저희 학술부가 이제 제자리를 찾고자합니다. 저희 학술편집부는 여러분 곁에서 최고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 을 약속합니다.

멋진 학술부가 되길.

’97 성민지 / 문헌정보학 학생회장

아직은 쌀쌀하지만 웬지 두꺼운 옷을 마다하게 되는 봄입니다.
99년 한해, 모든 문정인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문정교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 로 학생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문정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학술부.... 그리고 “그림비”. 언제나 진지한 모습으로 고민하는 선배 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학술부라는 이름으로 열 심히 살아가는 학술편집부 여러분!! 언제나 우리 문정 인과 함께 했으면 좋겠구요. 학생회 발전과 강화에 큰 역할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더욱 멋진 학술부가 되길 기원하구요... 언제나 옆에 서 힘이 되어줄수 있는 학생회장여 될게요.
학술부 파이팅!!

단합된 모습 볼 수 있길

졸업생 ’94 이 민 정 / 한성대 도서관

학술부에 같이 참여했던지가 벌써 3, 4년 전인 데.. 내가 학술부였을 때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 던 것이 약간 후회가 되는데 지금 있는 학술부원 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나는 그림비가 편안한 스타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학년도 부 담없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사서직에 대 한 진출 여부를 실어서 졸업할 후배들에게도 도 움이 되는 그림비가 되면 좋겠네요. 후배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은요...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 는 다가가기가 힘들다는거 알죠? 좀더 선배들과 친해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면 좋겠네 요. 마지막으로 학술부원끼리의 일체감이 잘 형 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단합도 잘되고요.. 그럼 더 좋은 그림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92 김병수 ’97 김소희

● 자유 기고문

후배를 바라보며...

벌써 3학년....

아직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정말루...

97년 2월, 아직 입학식도 하지 않은 내가 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술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든게 즐겁기만 하던 1학년 시절, 평생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술을 마셔도 뺨뺨했던 시절, 언젠 나 싱그러운 1학년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시절....

그런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새내기 때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던 그 모습보다는 졸업이 라는 커다란 문을 앞에 두고 이젠 내 미래를 정말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늦었을 지도 모르겠다.

한 달 전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3학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선배가 되었으면서도 99학번이 낯설기만 하고 좀처럼 쉽게 친해질 수가 없다.

학생수가 너무 많아지고 학과가 아닌 학부로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배든 후배든 서로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선배들은 어떤 후배가 들어왔는지, 누가 우리 과 후배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선배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3학년이 되어보니 지난 시절이 참 그리고 그래서인지 후배들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든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선후배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한번만이라도 참여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배와 후배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장하는 글

인문계열 ’99 김 미 정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꼭 짜여진 시간표대로만 살아왔다.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난 세월 동안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여기는 한성대 학교.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로운 시간들을 새내기다움으로 채워가며 대학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비록 고등학생 때의 숙제와 다름 바 없지만 레포트를 작성하라, 선배와 친구들간의 친목을 도모 하기 위한 행사들에 참여하라...어찌 보면 대학 생활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한 다. 이는 아마도 갑자기 닥친 자유를 감당하기에는 그 동안의 생활이 너무나도 구속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 생활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새내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 바로 “자유”라고 말하고 싶다.

새내기의 신선함, 발랄함, 새내기의 창조정신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심분 발휘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 을 희망차게 만들어야 한다.

’97 우 정 희

● 우리 학교 도서관 소식

문헌정보학과이면 당연히 우리학교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3층에 있던 정기간행물실이 4층으로 옮겨간 것
2. 4층의 열람실이 진리관으로 간 것이다.
3. 작년한해동안 2만 여권의 책 수입 (미정리 도서까지 합하여 도서관의 책이 19만 여권이 되었다.)
4. 기존에 사용하던 LINNET을 SLIMA S-T로 변경하였다. 수서의 완벽성과 연속간행물처리, 목차서비스, 원문복사 등의 새로운 모듈을 첨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5. 또한 4층에도 드나들 때 학생증이 있어야만 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6. 전자정보관에서는 원문 이미지 시스템을 2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태까지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 검색할 때 색인에 뿐만 아니라 서지사항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입력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문에 충실한 자료를 볼 수 있고 또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선택의 폭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서관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창이며 나 또한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써 또한 한성대학교 학생으로써 도서관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번 대학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이다.

’97 김소희

●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자료목록정보검색

소장자료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과 각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단말기 또는 카드 목록과 책자목록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헌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 등 공중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 하이텔 (한국PC통신) : go lib
- ▶ 천리안 (데 이 콤) : go library (국내발행 일반도서, 학위논문 목록정보)
- ▶ 인터넷 :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국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폭넓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강좌내용은 자녀독서지도와 정보문화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화 행사로서 4/6~4/30까지 도서관 주간-한국학 자료전이 열린다.

도서관 이용시간

자료실 09:00 ~ 18:00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엔 쉰다.

’98 김지혜

● 학술편집부 연간계획

학술편집부 동문회의 강화와 선우배 부원들의 김입한 유대감속에서 문헌정보학과 발전에 기여를 위하여 봉사한다.

일시	내용
3/17(수)	신입부원 환영회 및 생일파티
3/26(금)	학술편집부 M·J
4/3(토)	문헌정보 학술편집부 동문회
4/6(월)	그림비(소식지형1)발간
5/8(토)	학술답사(도서관탐방)
5/12(수)	학술편집부 단합회(생일파티등)
5/31(월)	그림비(소식지형2)발간
방중	그림비(책자형)작업 착수
9/8(수)	신입부원 환영회 및 생일파티
9/30(목)	그림비(소식지형3)발간
10/1(금)	학술편집부 정기세미나(발표식)
10/30(토)	문헌정보 학술편집부 동문회
11/22(월)	그림비(소식지형4)발간
11/29(월)	그림비(책자형)발간
12/11(토)	그림비(책자형) 평가회 및 위로회
2/10..	졸업생 환송회

계획성있는 활동내용과 그 밖의 학술부주최 학술제, 글짓기대회, 빠른손 대회, 정보검색대비 이론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학우들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1학년 새내기들의 계열모집으로 인해 아직 신입부원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학과와 답사부, 문정과의 학술부는 단일부서로서 신입부원을 모집하기로 학운위에서 결정이 났기에 알차고 참신한, 성실하고 자신감있는 후배님들을 저희 부서로 모실려고 하니 관심있으시 분은 한 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5 이상욱

● 문헌정보학과 소식



①체육대회를 했는데 결과는....

▷축구 2승 1패 4강탈락

▷농구 예선탈락

①학생회 각 집행부 및 소모임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①‘카르마’라는 소모임이 생겼습니다.(문학동아리)

①수업시간에는 휴대폰 및 호출기를 잠재웁시다.(학술부 캠페인)

①연합 M.T를 3월 19~ 20일 1박2일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산정호수에서...)

①각 학년 대의원(과대, 부과대)을 선출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학년(A)	1학년(A야)	1학년(B)	1학년(B야)	2학년	2학년(야)	3학년	4학년
과 대표	김미정	배미영	유 현	이성식	서수연	권래남	김지영	고일훈
부과대표	없음	신현상	최재원	정병두	이용경	김일래	이화진	정후정

①그림비가 예산문제로 1주일 늦춰졌습니다. 다음 발간에정일은 5월 31일입니다.

’97 정미숙

● 최근 영화

SHAKESPEARE IN LOVE

감독 : 존 매든
음악 : 스테픈 워백
셰익스피어 역 : 조셉 파인즈
바이올라 역 : 기네스 펠트로



이 영화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가 사랑을 했었을 것이라는 리고 이 영화에서 바이올라역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하였다.

각본 : 마크 노먼 / 톰 스토파드
의상 : 샌디 파웰
촬영감독 : 리차드 그레이트릭스
네드알레인 역 : 벤 에플렉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을 당시에 가정하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그 말은 기네스 펠트로는 아카데미에

쉬리

감독 : 강제규
주연 :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이 영화는 남북의 첩보영화이다.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숨을 거둔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한국형 액션 블록버스터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둔 영화이다.



● 특특! 인터넷 사이트

1. 취업을 하려면 (www.joininfo.co.kr)
구인 정보, 구직 정보, 구직 등록, 취업 사이트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2. 전화번호를 알려면 (www.114.co.kr)
전화 번호를 모를 때 114에 전화를 자주 거나요? 아니면 불편하지만 전화 번호부를 뒤지나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화 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변경에 관한 모든 것이 있어요.
3.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려면 (www.webhospital.com)
바쁜 나날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잊고 지내신 적은 없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지요. 이 홈페이지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고 자신의 건강을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드세요.
4. 불행한 사람을 도우려면 (www.saram.com)
남의 불행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준다면 이 사회는 좀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일기 예보를 알려면 (www.kma.go.kr)
일반적으로 뉴스 시간에 일기 예보를 알게 됩니다. 또한 신문에도 일기 예보가 게재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TV나 신문을 접할 수 없다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96 김선희

● 생각하는 글

뭐가 되고 싶어요?
얼마 전 우연히 딸에게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둘째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유아원에서 막 돌아온 다석 살짜리 주영이가 내 옆에 벌렁 눕더니 뜬금없이 물었다.
“엄마, 엄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주영이는 이따금씩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유치원에서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에 관해 얘기한 모양이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선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바삐 살다 보니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궁금하다는 듯 내 얼굴을 뜯어져라 쳐다보는 주영이에게 “넌 뭐가 되고 싶은데?”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주영이는 “난, 음, 유치원 선생님이 될 테야. 엄마는? 얼른...” 하며 재촉했다.
“음, 엄만 자라서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될 수 없어요. 벌써 어머니깐요. 정말 뭐가 되고 싶어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될까?”
“안돼. 엄마는 벌써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몹시 난감해 하자 주영이는 “엄마는 되고 싶은 게 없어? 뭐든지 될 수 있단 말야” 하며 즐겼다.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멍해져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아이는 대답 들기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나는 아직도 뭐든지 다 될 수 있었다. 나이와 직업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아직 꿈을 꿀 수 있고, 별을 쫓아갈 수 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나의 삶은 아직 빈 공간이 많았다. 아, 무척 아름다운 일이었다. <오늘의 생각,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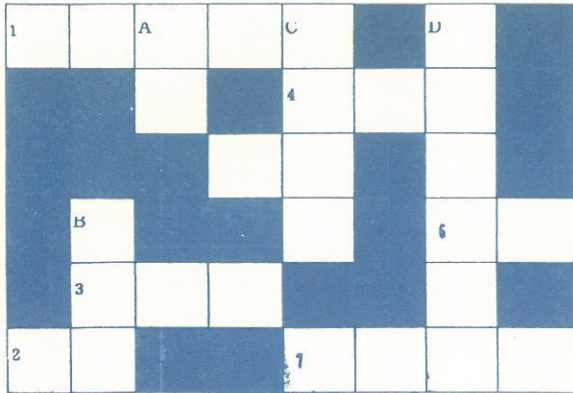
*96 오효선

● 문쟁과에서 말한다 (대자보에 게시 후 의견 수렴)

1. 실습실에 있는 맥킨토시 컴퓨터 사용방법 가르쳐주세요. (무늬만 컴퓨터 아네요.)
2. 강의실에 뒷문 좀 달아주세요(?)
3. 컴퓨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4. 정수기 좀 설치해 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요.
5. 음료수 자판기가 자주 망가져요. 돈만 먹어요.
6. 겨울이 너무 추워요.
7. 동전전화도 있었으면 해요.
8.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떠들면 너무 화가 나요.
9. 정보학 관련 교수님의 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10. 99학번은 무슨과예요?

*97 정미숙

● **남말퍼즐**



<가로열쇠>

1. 낙산에 위치한 명문(?)대학교
2. 원격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3. 수강신청 조회시 거쳐야 하는 곳(치열한 경쟁이 요구)
4. 형제가수로 불우이웃을 위해 길거리공연을 많이 한다.
5. 책의 내용을 평한 글
6. 2학년이 되면서 임용고시를 위해 꼭 파야하는 자격 이수 과목
7. C.O.D.의 데뷔곡으로 가출소년 두 명을 돌아오게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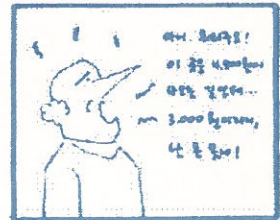
<세로열쇠>

- A. 친구의 도움으로 출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B. 정보검색
- C. 대학에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는 평가
- D. 우리과 교수님 중에서 마지막에 부임하신 분으로 컴퓨터 관련 수업이 많다.

'98 김은희

이럴수가

'97 조진선



● **만든이들**



		학술편집부	
부	장	'95 이 상 욱	
차	장	'98 김 은 희	
총	무	'98 정 미 숙	
부	원	'92 김 병 수	'96 김 선 희
		'96 오 호 선	'96 노 은 미
		'97 김 소 희	'97 우 정 희
		'97 조 진 선	'98 김 지 혜

저희 학술편집부에서는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신입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